

## 경영안정화로 육계산업 발전에 큰기대

2003년 말 국내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소비자의 닭고기 외면, 소비 감소, 육계산업의 위기와 생계형 소매점주의 자살, 폐점 등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초래, 최종 부도 피해를 입게 된 업체로서 당시 전국적인 “닭고기 소비운동” 촉발의 한 계기가 되었던 주식회사 체리부호가 만 2년 만에 극적으로 화의를 종결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었다.

국내 대표적인 육계계열업체의 하나인 주식회사 체리부로(대표이사 김인식)가 2006년 2월 14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보고의 무면제승인(화의종결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연말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 2004년 5월 3일 화의를 인가 받은 후, 1년 9개월의 짧은 기간에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이루었다.

이토록 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이룬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서, 협력생산농가, 협력 업체 및 회사 임직원이 함께 협조하여 경영정상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지난 2년간 수익성 제고 및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주해 온 노력의 결과로서 노·사·협력업체의 협력, 공생을 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체리부로는 화의 이후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 감축, 자산매각 등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재조정, 생산과 상거래의 효율성 제고 및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경영 정상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서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체리부로는 지난 2004년 화의 인가 당시의 상거래 채무 150억원을 전액 변제하고 금융권 채무 300여 억 원 가운데 200여억 원을 상환 하고 100여억 원을 정상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완전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었다. 화의개시 년도 부채비율 1,039% 상태에서 2005년 말 기준 88.6% 등 제반 경영지표가 크게 개선되어 우량기업으로 변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도드람B&F의 참여를 비롯한 유상증자로 확고한 내부적 경영 안정화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안정적인 경영체제 및 경쟁력 강화를 발판으로 (주)체리부로 회사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내부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 주위 많은 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금년 2006년도 상반기에는 충북 진천 공장에 2개 라인의 최신식 도계 설비와 신규 가공설비 투자를 완료하여 가동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주)체리부호가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명실상부한 축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인식 대표이사